

「국가발전을 위한 과학기술인의 큰 다짐」 결의대회 개최

科總 등 과학기술계 6개단체 공동개최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를 비롯한, 한국과학교육단체총연합회, 한국과학기술한림원, 한국공학원,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과학기술포럼 등 과학기술계 6개단체는 7월 18일 한국과학기술회관 국제회의장에서 현재 우리경제의 어려운 시기를 맞이하여 국가발전의 원동력이 과학기술의 진흥과 혁신에 있음을 직시하고 국가발전을 위한 500만 과학기술인의 큰 다짐을 내외에 천명하는

과학기술포럼이사장의 주제강연, 蔡永福 한국과학기술한림원부원장·李基俊 한국공학원장·朴承載 한국과학교육단체총연합회장·趙成洛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상근부회장·鄭助英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상임부회장의 주제발표와 종합토론에 이어 결의문 채택(趙完圭 한국과학기술한림원장 낭독)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崔亨燮과총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우리나라가 선진화되려면 나라전체

가 연구개발에 주력하는 ‘한국연구개발 주식회사’가 되도록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전제하고 “이러한 일들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데에는 과학기술개발에 대한 거국적인 체제가 마련되어야 하고 이를 위한 노력이 국가차원에서 최우선 순위를 차지하도록 정책적인 배려가 이루어져야 하며 특히 국민을 그러한 방향으로 이끌어가야 할 국가원수의 리더십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리셉션에 참석한 權肅一 과기처 장관은 격려사에서 “오늘날 우리나라가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급변하는 개혁의 물결속에서 살아남기 위하여는 국가발전의 원동력인 과학기술발전에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지적하고 “오늘의 큰 다짐대회는 국가발전을 위한 과학기술인의 역할을 실천적으로 선언하고 그 결의를 다짐함은 물론, 여기서 천명한 목표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데 그 의의가 매우 크다”고 말했다.

“이제 우리는 과학기술로 다시 도약할 수 있다” 5백만 과학기술인의 결의문 -우리의 다짐과 호소-

오늘 우리 500만 과학기술인은 나리의 경제가 위기에 있음을 인식하고 이는 그간의 과학기술 정책의 미비와 우리 과학기술인의 안이한 자세에 있었음을 통감하며, “이제 우리는 과학기술로 다시 도약할 수 있다”는 소신 아래 나라의 경제를 살리고 복지선진사회 구현에 기여할 것을 다짐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였다.

특히 오늘과 같은 열악한 과학기술환경과 연구풍토를 개선하지 않고서는 앞으로 더욱 치열해질 국제적 경쟁에 대응할 수 없으며 선진국으로의 진입은 한낱 꿈이요, 민족의 생존마저 기약할 수 없음을 절감한다. 이에 우리는 내실

있는 과학교육을 통한 우수한 인력양성과 적극적인 연구지원에 의한 과학기술력의 축적이 바로 경제발전의 원동력이며 나아가 국가발전의 근원임을 굳게 인식하여 다음과 같이 다짐하며 정치권과 국민에게 호소한다.

우리의 다짐

1. 우리는 과학기술이 국가발전의 근간임을 인식하고 투철한 사명감으로 과학기술력을 결집하여 밝은 미래를 창조하는 과학기술역군이 되기를 다짐한다.
1. 우리는 부단히 창의력 계발을 위한 2세교육에 정진하고 독창적인 연구개발에 전념하여 국가경쟁력 제고에 앞장선다.

1. 우리는 봉사정신으로 선진복지국가 건설에 적극 참여하고 우리의 사회적 지위와 권익을 신장하는데 온 힘을 기울인다.

우리의 호소

1. 우리는 과학기술의 연구역량을 제고하고 연구개발사업을 효과적으로 조정할 과학기술수행정책부서가 더욱 강화되기를 촉구한다.

1. 우리는 “과학기술혁신을 위한 특별법”의 입법정신에 입각하여 연구개발투자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연구지원체제가 더욱 강화되며 과학기술인에 대한 우대조치가 있기를 촉구한다.

1. 우리는 창의적인 과학기술인재의 양성을 위하여 과학기술교육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되기를 촉구한다.

1. 우리는 과학기술정책이 정치논리나 경제논리에 희생되는 것을 배격한다.

1997년 7월 18일

전국과학기술자대표일동